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제 2 보)  
—Dress 및 Pants-Blouse의 형태와 색채를 중심으로—

이 주 현 · 강 혜 원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The Effect of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Part II**  
—Emphasis on the form & color of dress and of pants-blouse—

**Joohyeon Lee · Hewon Kah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1995. 8. 16 접수)

**Abstract**

The dimensional structure of impression formed of a female figure in specific attire was identified and significant influence of skirt length and suit color on impression formed of figures in suits were researched in the part I of this study. In part II, the effect of identical elements of apparel design on impression formation of a female figure in dress and pants-blouse were studied.

The experimental materials consisted of two sets of stimuli and 7 point semantic differential response scale developed in part I. Each set of stimuli was composed of 20 drawings representing female figures in each attir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which were the length of bottom, color of dress or pants and collar type of blouse, were manipulated in each stimulus. The experiment was arranged by 3 factorial design,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3-way ANOVA and by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To summarize, in impression formation of figure in dress, the most dominant design element was identified as bottom length and the second most dominant one was color of dress. In contrast, in perception of figure in pants-blouse, the most important design element was color of pants and secondly important one was bottom length. The collar type of top didn't have critical effect on impression formation of figures in both type of attire.

I. 서 론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의복과 치장등을 타인에 대한

인상형성의 단서로 사용하며, 피지각자의 외모를 구성하는 단서들을 각기 분리시켜 분석하면 서로 부조화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자는 피지각자에 대한 통합적 (Gestalt적)인상을 형성한다<sup>1)</sup>.

의복이 의복착용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복유형 또는 의복색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의복내의 변인들이 체계적으로 조작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 내의 여러변인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체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이 지니는 중요성과 의미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의상사회심리학분야와 의상디자인분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목적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은 어떠한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규명한다.

<연구목적 2> 의상디자인요소들은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1) 의상디자인요소들은 suit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2) 의상디자인요소들은 dress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2-3) 의상디자인요소들은 pants-blouse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연구목적 3> 의상디자인요소들중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요소인가를 알아본다.

제 I보(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에서는 <연구목적 1>과 <연구목적 2-1>을 규명하였는데,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의 차원구조를 분석하였고, 의복은 인상형성 초기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는 사회심리학이론을 지지하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의복형태와 색채가 suit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이어서 제 II보에서는 dress 및 pants-blouse착용자에 있어 첫째, 의상디자인 요소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고 둘째,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를 분석하였다.

제 II보는 제 I보와 함께 진행된 연구이므로 여기에서

는 제 I보와 중복되는 이론적 배경, 용어정의, 연구방법의 일부 등은 생략하였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제 I보에서는 <가설 1>과 <가설 2-a>를 검증하였고, 제 II보에서는 <가설 2-b>와 <가설 2-c>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1> 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은 평가, 능력, 활동성 차원을 포함한 몇 개의 차원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다.

<가설 2> 의상디자인 요소들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a) 의상디자인 요소들은 suit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b) 의상디자인의 요소들은 dress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c) 의상디자인 요소들은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실험

제 I보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준실험연구법(quasi-experimentation)을 사용하여, 1989년 11월에 임의 표집된 200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 1) 실험구성 및 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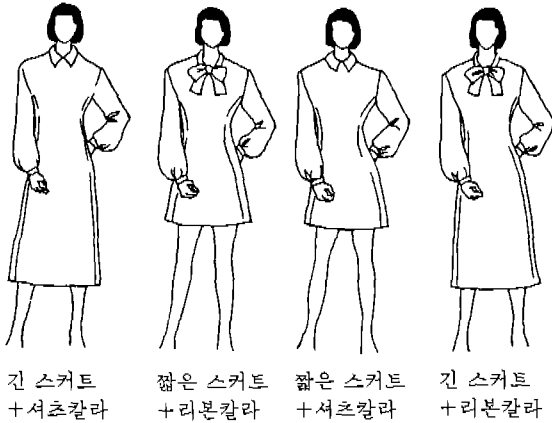
본 실험은 의복유형(suit, dress, pants-blouse)을 block화 시킴으로써 의복유형에 따른 독립적인 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의복유형을 block요인으로 실험을 구성한 이유 및 실증적인 근거는 제 I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였다.

실험처치는 독립변인(의상디자인 요소)들이 조작된 자극물(1명의 의복착용자의 그림을 촬영한 사진)을 피험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의복착용자가 주는 인상)을 설문지에 응답하는 것이었다. 모든 자극물에서 의복착용자의 얼굴 모습, 자세, 헤어스타일, 배경 등은 통제되었다[그림 1, 2 참조].

#### 2) 실험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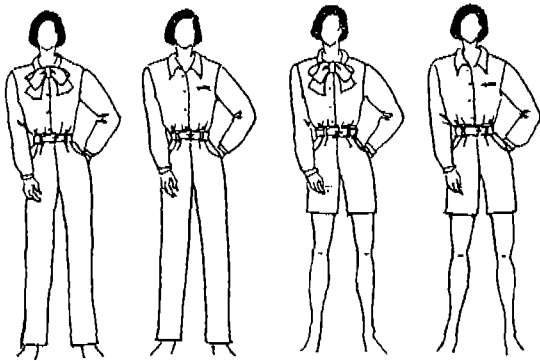
실험의 독립변인은 3개 의상디자인 요소들 즉 의복색채(빨강, 파랑, 노랑, 하양, 검정), 하의길이(긴길이,

짧은 길이), 칼라유형(리본/셔츠칼라)등이며, 실험은 3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 설계 (between subject design)에 의해 구성되었다.



긴 스커트 + 셔츠칼라      짧은 스커트 + 리본칼라      짧은 스커트 + 셔츠칼라      긴 스커트 + 리본칼라

[그림 1] Dress 착용자의 자극물(색채는 제외)



긴 팬츠 + 리본칼라      긴 팬츠 + 셔츠칼라      짧은 팬츠 + 리본칼라      짧은 팬츠 + 셔츠칼라

[그림 2] Pants-blouse 착용자의 자극물(색채는 제외)

3) 설문지

설문지는 제 I보에서 보고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의미분척도, 피험자의 학년과 전공을 묻는 문항, 자극 물에 대한 자유응답 등으로 구성되었다.

4) 자료분석

의상디자인 요소가 의복착용자의 5개 인상차원(제 I보의 연구결과 참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미분척도의 자료를 3원 변량분석하고, 그 결과 독립변인 간의 유의적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

우에 한해, 이를 다시 Multiple Classification Analysis (MCA)로 분석하므로써 독립변인들의 수준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III. 실험결과

1. Dress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실험결과

3개의 의상디자인 요소들이 dress착용자의 5개 인상차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능력-활동성 차원

<표 1>과 같이 dress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차원에는 dress길이만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짧은 dress의 착용자는 긴 dress착용자보다 더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2) 품위 차원

<표 2>와 같이 품위 차원에는 dress길이와 dress색채, 그리고 dress 길이와 칼라유형간의 상호작용효과, 3개 독립변인 간의 3원 상호작용효과 등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이 중 dress길이와 칼라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한 결과, 짧은 dress에는 셔츠칼라가 달린 경우에, 긴 dress에는 리본칼라가 달린 경우에, 각각 착용자는 더욱 품위있고 사무적이며 나이든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한편 독립변인들 간의 3원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하여 dress 색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검정색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색채의 dress착용자에서 dress길이와 칼라유형 간의 유의적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빨간색, 파란색, 하얀색의 dress착용자에서는 짧은 dress에는 셔츠칼라가 달린 경우에, 긴 dress에는 리본칼라가 달린 경우에 각각 착용자는 더욱 사무적이고 격식을 차렸으며 나이든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그러나 노란색 dress착용자에서는 이와는 다른 지각경향을 나타내어, 짧은 dress에서는 리본칼라가 달린 경우에 착용자는 더욱 사무적이며 나이든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긴 dress에서는 두 칼라유형에서 모두 비슷한 인상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dress착용자의 품위에 관련된 인상은 dress색채와 길이, 칼라유형의 조합에 의해서 영향받음을 알 수 있다.

3) 주의집중성 차원

<표 3>과 같이 주의집중성 차원에는 dress색채와

<표 1> Dress 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인상차원<sup>a</sup>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39.42	6	6.57	11.14	.000
	의복색채	5.63	4	1.41	2.39	.053
	Dress 길이	32.81	1	32.81	55.64	.000
	Collar 유형	.90	1	.90	1.53	.218
	2 원 상호작용 효과	4.83	9	.54	.91	.518
	색채×Dress 길이	1.88	4	.47	.80	.529
	색채×Collar 유형	2.40	4	.60	1.02	.400
	Dress 길이×Collar 유형	.57	1	.57	.97	.326
	3 원 상호작용 효과	.43	4	.11	.18	.947
	오차	102.02	173	.59		
전체	146.70	192	.76			
MCA	총 평균( $\bar{Y}_{.}$ ) = -.87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sup>b</sup>		ETA 값 <sup>c</sup>
	의복색채 : 빨강		36	.27		
	파랑		38	.12		
	노랑		39	-.02		
	하양		40	-.22		
	검정		40	-.11		.20
	Dress 길이 : 짧은 것		97	.41		
	긴 것		96	-.41		.47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7	.07		
	ribbon collar		96	-.07		.08
Multiple R <sup>2</sup> = .27 Multiple R = .52						

a : 점수가 높을수록 능력있고 활동적임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 $Y_{j.} - \bar{Y}_{.}$ )

c :  $ETA \text{ 계수} = \left( \frac{\text{각 실험조작에 의한 변량}}{\text{총변량}} \right)^{1/2}$

dress길이, 그리고 dress길이와 칼라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이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짧은 dress에는 리본칼라가 달린 경우에, 긴 dress에는 셔츠칼라가 달린 경우에 dress착용자는 각각 더욱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4) 평가-매력 차원

<표 4>와 같이 평가-매력 차원에는 dress색채, dress길이, 그리고 dress길이와 칼라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짧은 dress에는 셔츠칼라가 달린 경우에, 긴 dress

에는 리본칼라가 달린 경우에 착용자는 비교적 더 매력 있고 호감이 가는 인물로 지각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두 경우 모두에서 dress착용자의 매력과 평가는 낮게 지각되었다.

5) 깔끔함 차원

<표 5>와 같이 깔끔함 차원에는 dress색채와 dress길이만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MCA의 Eta계수의 상승값을 비교하면, 깔끔함 차원의 인상지각에서는 dress길이보다는 dress색채가 더 중요한 단서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노란색

<표 2> Dress 착용자의 품위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19.10	6	3.18	7.60	.000
	의복색채	5.39	4	1.35	3.22	.014
	Dress 길이	13.57	1	13.57	32.40	.000
	Collar 유형	.10	1	.10	.23	.631
	2 원 상호작용 효과	6.13	9	.68	1.63	.111
	색채×Dress 길이	.79	4	.20	.47	.756
	색채×Collar 유형	2.70	4	.67	1.61	.174
	Dress 길이×Collar 유형	2.70	1	2.70	6.44	.012
	3 원 상호작용 효과	5.93	4	1.48	3.54	.008
	오 차	72.44	173	.42		
	전 체	103.60	197	.54		

<표 3> Dress 착용자의 주의집중성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52.05	6	8.68	9.78	.000
	의복색채	16.31	4	4.08	4.60	.001
	Dress 길이	35.58	1	35.58	40.10	.000
	Collar 유형	.31	1	.31	.35	.553
	2 원 상호작용 효과	14.24	9	1.58	1.78	.075
	색채×Dress 길이	1.90	4	.48	.54	.710
	색채×Collar 유형	7.85	4	1.96	2.21	.070
	Dress 길이×Collar 유형	4.42	1	4.42	4.98	.027
	3 원 상호작용 효과	5.34	4	1.34	1.51	.203
	오 차	153.48	173	.89		
	전 체	225.11	192	1.17		

<표 4> Dress 착용자의 평가-매력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25.39	6	4.23	5.37	.000
	의복색채	21.94	4	5.48	6.96	.000
	Dress 길이	3.20	1	3.20	4.06	.046
	Collar 유형	.24	1	.24	.31	.581
	2 원 상호작용 효과	11.42	9	1.27	1.61	.116
	색채×Dress 길이	3.70	4	.92	1.17	.325
	색채×Collar 유형	4.56	4	1.14	1.45	.221
	Dress 길이×Collar 유형	3.34	1	3.34	4.24	.041
	3 원 상호작용 효과	7.65	4	1.91	2.43	.050
	오 차	136.38	173	.79		
	전 체	180.84	192	.94		

<표 5> Dress 착용자의 깔끔함<sup>a</sup>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41.99	6	7.00	6.36	.000
	의복색채	33.02	4	8.26	7.51	.000
	Dress 길이	8.63	1	8.68	7.89	.006
	Collar 유형	.20	1	.20	.18	.674
	2 원 상호작용 효과	7.73	9	.86	.78	.634
	색채×Dress 길이	7.17	4	1.79	1.63	.169
	색채×Collar 유형	.55	4	.14	.13	.973
	Dress 길이×Collar 유형	.00	1	.00	.00	.972
	3 원 상호작용 효과	.89	4	.22	20	.937
	오차	190.30	173	1.10		
전체	240.91	192	1.26			
MCA	총 평균( $\bar{Y}_{..}$ ) = -.08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sup>b</sup>		ETA 값 <sup>c</sup>
	의복색채 : 빨강		36	.28		
	파랑		38	-.24		
	노랑		39	.46		
	하양		40	.50		
	검정		40	-.67		.37
	Dress 길이 : 짧은 것		97	.21		
	긴 것		96	-.21		.19
	Collar 유형 : shirt collar		97	-.03		
ribbon collar		96	.03		.03	
Multiple R <sup>2</sup> = .17						
Multiple R = .42						

- a : 점수가 높을수록 깔끔함을 의미한다.
-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 $Y_{j.} - \bar{Y}_{..}$ )
- c :  $ETA \text{ 계수} = \left( \frac{\text{각 실험조각에 의한 변량}}{\text{총변량}} \right)^{\frac{1}{2}}$

dress, 하얀색 dress, 짧은 dress 등의 착용자는 더 깔끔한 인상으로 지각되었으며, 검정색 dress 및 긴 dress 착용자는 더 깔끔하지 못한 인상으로 지각됨을 알 수 있다.

**2. Pants-blouse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실험결과**

의상디자인 요소들이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능력-활동성 차원**

<표 6>과 같이 pants-blouse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인상 차원에는 pants의 색채, blouse의 칼라 유형, pants길이와 blouse 칼라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짧은 pants에는 셔츠칼라의 blouse를 조합시켰을 때에 착용자는 더 능력있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지각되었으며, 리본칼라 blouse의 경우에는 조합시킨 pants의 길이와 관계없이 능력-활동성 차원의 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2) 품위 차원**

<표 7>과 같이 pants-blouse착용자의 품위 차원의 인상에는 pants의 색채, 길이 등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

<표 6> Pants-blouse 착용자의 능력-활동성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6.33	6	1.05	2.88	.011
	의복색채	4.80	4	1.20	3.28	.013
	Pants 길이	.20	1	.02	.06	.808
	Collar 유형	1.58	1	1.58	4.31	.039
	2 원 상호작용 효과	3.55	9	.39	1.08	.382
	색채×Pants 길이	.43	4	.11	.29	.883
	색채×Collar 유형	1.50	4	.38	1.02	.396
	Pants 길이×Collar 유형	1.62	1	1.62	4.43	.037
	3 원 상호작용 효과	.26	4	.07	.18	.949
	오 차	65.13	178	.37		
	전 체	75.27	197	.38		

<표 7> pants-blouse 착용자의 품위 인상차원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46.11	6	7.69	20.94	.000
	의복색채	5.21	4	1.30	3.55	.008
	Pants 길이	39.68	1	39.68	108.12	.000
	Collar 유형	1.15	1	1.15	3.14	.078
	2 원 상호작용 효과	2.19	9	.24	.66	.741
	색채×Pants 길이	.62	4	.15	.42	.794
	색채×Collar 유형	.88	4	.22	.60	.665
	Pants 길이×Collar 유형	.69	1	.69	1.87	.173
	3 원 상호작용 효과	1.23	4	.31	.84	.501
	오 차	65.32	178	.37		
	전 체	114.86	197	.58		

총 평균( $\bar{Y}..$ ) = -.75		응답수	평균값 차 <sup>b</sup>	ETA 값 <sup>c</sup>
변인 및 수준				
MCA	의복색채 : 빨강	40	.06	.21
	파랑	40	-.22	
	노랑	39	-.12	
	하양	39	.03	
	검정	40	.25	
	Pants 길이 : 짧은 것	98	-.45	.59
	긴 것	100	.44	
	Collar 유형 : shirt collar	100	-.08	.11
	ribbon collar	98	.08	
	Multiple R <sup>2</sup> = .40			
Multiple R = .63				

a : 점수가 높을수록 사무적임, 격식차림, 나이들어 보임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내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 $Y_{j.} - \bar{Y}..$ )

c :  $ETA$  계수 =  $\frac{(\text{각 실험조각에 의한 변량})^{\frac{1}{2}}}{\text{총변량}}$

< 표 8 > Pants-blouse 착용자의 주의집중성 인상차원<sup>a</sup>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25.73	6	4.29	5.85	.000
	의복색채	17.87	4	4.47	6.09	.000
	Pants 길이	5.70	1	5.69	7.76	.006
	Collar 유형	2.20	1	2.20	3.00	.085
	2 원 상호작용 효과	5.77	9	.64	.87	.549
	색채×Pants 길이	4.69	4	1.17	1.60	.177
	색채×Collar 유형	1.10	4	.27	.37	.827
	Pants 길이×Collar 유형	.02	1	.02	.03	.860
	3 원 상호작용 효과	3.08	4	.77	1.05	.382
	오 차	130.53	178	.73		
전 체	165.11	197	.84			
MCA	총 평균( $\bar{Y}_{..}$ ) = -.26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sup>b</sup>		ETA 값 <sup>c</sup>
	의복색채 : 빨강		40	.45		
	파랑		40	-.28		
	노랑		39	.32		
	하양		39	.24		
	검정		40	-.10		.33
	Pants 길이 : 짧은 것		98	.17		
	긴 것		100	-.17		.18
	Collar 유형 : shirt collar		100	-.10		
ribbon collar		98	.11		.11	
Multiple R <sup>2</sup> = .16						
Multiple R = .40						

a : 점수가 높을수록 화려함, 특이함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 $Y_{j.} - \bar{Y}_{..}$ )

c :  $ETA \text{ 계수} = \left( \frac{\text{각 실험조각에 의한 변량}}{\text{총변량}} \right)^{\frac{1}{2}}$

다. MCA의 Eta계수의 자승값을 비교하면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pants길이의 영향이 pants색채의 영향보다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으며,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검정색 pants, 긴 pants 등의 착용자는 더욱 격식차렸고 나이 든 사람으로, 파란색 pants착용자 및 짧은 pants착용자는 격식을 덜 차렸고 더 어린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3) 주의집중성 차원

< 표 8 >에서와 같이 주의집중성 차원에는 pants의 길이, 색채가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MCA의 Eta계수의

자승값을 비교하면, pants-blouse착용자의 주의집중성 차원에 관한 인상은 pants의 색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빨간색 pants착용자 및 짧은 pants착용자는 더욱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4) 평가-매력 차원

< 표 9 >에서와 같이 pants-blouse착용자의 평가-매력 인상 차원에는 pants의 색채와 blouse의 칼라유형이 유의적 영향을 미쳤다. MCA의 Eta계수의 자승값을 비교하면 pants색채는 blouse의 칼라유형보다, pants



<표 9> Pants-bouse 착용자의 평가 - 매력 인상차원<sup>a</sup>에 의상디자인요소가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Sources	SS	df	MS	F value	P value
3 원 변량분석	주 효과	20.95	6	3.49	3.86	.001
	의복색채	16.60	4	4.15	4.59	.002
	Pants 길이	.24	1	.24	.27	.607
	Collar 유형	4.05	1	4.05	4.47	.036
	2 원 상호작용 효과	4.34	9	.48	.53	.850
	색채×Pants 길이	.56	4	.14	.16	.961
	색채×Collar 유형	2.95	4	.74	.82	.517
	Pants 길이×Collar 유형	.79	1	.79	.88	.351
	3 원 상호작용 효과	6.05	4	1.51	1.67	.159
	오차	161.15	178	.91		
전체	192.48	197	.98			
MCA	총 평균( $\bar{Y}_{..}$ ) = -.26					
	변인 및 수준		응답수	평균값 차 <sup>b</sup>		ETA 값 <sup>c</sup>
	의복색채 : 빨강		40	-.34		
	파랑		40	.62		
	노랑		39	-.22		
	하양		39	.40		
	검정		40	.29		.29
	Pants 길이 : 짧은 것		98	.04		
	긴 것		100	-.04		.04
	Collar 유형 : shirt collar		100	.14		
ribbon collar		98	-.15		.15	
Multiple R <sup>2</sup> = .11						
Multiple R = .33						

a :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평가, 매력적임을 의미한다.

b : 각 집단의 평균값과 총 평균값과의 차( $Y_{j.} - \bar{Y}_{..}$ )

c :  $ETA \text{ 계수} = \left( \frac{\text{각 실험조건에 의한 변량}}{\text{총변량}} \right)^{\frac{1}{2}}$

-blouse착용자의 평가-매력 인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면 파란색 pants 및 셔츠칼라의 blouse착용자는 더욱 매력 있으며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지각되었고, 빨간색 pants 및 리본칼라의 blouse착용자는 매력없고 호감이 가지 않는 인상으로 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깔끔함 차원

깔끔함 인상차원에는 3개 독립변인이 모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을 통하여, <가설 2-b>와 <가설 2-c>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IV. 논 의

독립변인의 수준 간 차이를 통하여 실험 결과를 논의 하기 위해서, 3원변량분석에서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MCA의 평균값 차를 비교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각 실험조합의 평균값을 단순 비교하였다.

### 1. Dress착용자의 인상에 의복형태와 색채가 미치는 영향

Dress색채는 능력-활동성차원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검정색 dress 착용자는 가장 사무적이고 격식을 차렸으며 나이 든 사람(품위차원: 집단평균값 0.00, 총평균 0.18), 가장 깔끔하지 않고 어두운 사람(<표 5> 참조)으로 지각되었는데, 이 결과는 색채의 상징이론<sup>1,2)</sup>에서 검정색은 엄숙, 침묵, 슬픔을 상징한다고 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한편 빨간색 dress착용자는 가장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주의집중성 차원: 집단평균값 0.78, 총평균 0.18)으로 지각되었는데, 이 결과는 색채의 상징 이론<sup>1,2)</sup>에서 빨간색은 태양, 불, 피, 정열, 활동 등을 상징한다고 한 설명을 뒷받침한다. 빨간색 dress착용자에 대한 높은 주의집중성 정도는, 검정색 머리의 여성이 빨간색 의복을 착용했을 때에 의복착용자는 가장 대담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고 한 Mahannah<sup>3)</sup>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빨간색 및 검정색 dress착용자에서 나타난 상징적 의미는, 실증자료 없이 사변적으로만 전개되어 온 색채의 상징 이론<sup>1,2)</sup>에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겠다.

Dress길이는 dress착용자의 인상의 모든 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짧은 dress착용자는 긴 dress착용자에 비해 더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깔끔한 인상(<표 1>, <표 2> 참조), 덜 사무적이며 더 어려보이는 인상(품위차원: 집단평균값 -0.41, 총평균 -0.14), 덜 매력적이고 호감이 가지않는 인상(평가-매력 차원: 집단평균값 -0.50, 총평균 -0.37),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인상(주의집중성 차원: 집단평균값 0.60, 총평균 0.18)으로 지각되었다. 또한 dress길이와 칼라유형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dress착용자의 3개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짧은 dress길이와 리본칼라가 조합되었을때에 dress착용자는 가장 덜 사무적이며 더 어려보이고, 눈에 띄고 화려하며, 호감이 가지않고 매력없는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그 외에 dress의 칼라유형은 dress착용자의 어느 인상차원에도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을 통하여 본 연구의 3개 독립변인 중 dress착용자의 인상차원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요소는 dress 길이임을 알 수 있다.

### 2.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에 의복형태와 색채가 미치는 영향

Pants의 색채는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 중 깔끔함 차원을 제외한 4개 인상차원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파란색 pants착용자는 가장 능력있고 활동적인 인상(능력-활동성 차원: 집단평균값 0.74, 총평균 0.60), 가장 격식을 덜 차렸으며 어린 사람(<표 7> 참조), 가장 수수하고 평범한 사람(<표 8> 참조), 가장 매력있고 호감이 가는 사람 (<표 9> 참조)등으로 지각되었으며, 이 결과는 파란색은 하늘, 바다, 청년, 천국, 희망 등을 상징한다는 색채의 상징이론<sup>1,2)</sup>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파란색 pants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 결과는 제 I보의 의복착용자에 대한 자유응답 결과에서 파란색 Pants를 청바지라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던 것과 관련된 듯 하다. 즉 본 연구의 피지각자인 여대생들에게 있어 청바지는 가장 보편적이며 평범, 친숙하며, 활동적인 의복이므로, 이같은 청바지에 관련된 지각자의 경험이 의복착용자에 대한 인상형성에 개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Pants길이는 품위, 주의집중성의 두 인상차원에만 영향을 미쳤다. 즉 짧은 pants-blouse착용자는 긴 pants-blouse착용자보다 격식을 덜 차렸고 더 어려보이며 더 눈에 띄고 화려한 사람으로 (<표 7>, <표 8> 참조) 지각되었다.

한편 blouse의 칼라유형은 pants-blouse착용자의 능력-활동성과 평가-매력의 인상차원에 영향을 미쳤다. 즉 리본칼라의 blouse보다는 셔츠칼라의 blouse가 pants와 조합되었을때에 착용자는 더 능력있고 활동적이며, 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인상으로 지각되었는데, 이는 여대생집단에 있어 pants와 리본칼라 blouse의 조합보다는 pants와 셔츠칼라 blouse의 조합이 더욱 보편적이며 친숙하고 활동성있는 차림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을 통하여 pants-blouse착용자의 인상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요소는 pants의 색채이며, pants 길이 및 blouse의 칼라유형도 부분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제 I보와 제 II보에서 얻은 연구의 결과를 통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스커트형태인 suit과 dress착용자에 대한 인상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 요소는 하의길이(스커트길이)였다. 이는 스커트길이는 의복의 실루엣을 구성하는 요소중 하나이며, 실루엣은 의복착용자모습의 가장 기본적 구조로서 시지각에 있어 전체 형태를 규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Delong<sup>4)</sup>의 의류학 이론을 뒷받침한다.

둘째, 의복유형이 pants일 때에는 하의길이의 영향력은 감소한 반면, pants의 색채는 착용자의 인상에 가장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요소로서 부각되었다. 다시 말하여 의복유형이 스커트에서 pants형태로 달라짐에 따라 착용자의 인상에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의상디자인요소도 달라졌다. 이 결과를 본 연구의 paradigm인 Asch<sup>5)</sup>의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하면, 인상형성의 맥락(context; 여기에서는 의복유형)에 따라 중심특질정보(central trait)의 영향력도 달라진다는 형태주의(Gestalt)입장의 인상형성이론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3개 의복유형에 걸쳐 지각된 5개 의복색채의 상징적 의미는, 전통적인 색채의 상징이론을 대체로 지지하였다. 한편 의복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의복유형과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각심리학의 정보처리이론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즉 하나의 피지각체의 형태와 색채는 서로 독립된 정보로서 처리된 후 지각의 중간단계에서 상호작용하여 통합(coordinate)되는데, 이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는 동안 같은 색채라도 형태에 따라 다른 정보값을 갖게 되므로, 같은 색채의 피지각체라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의 의복색채는 의복유형, 하의길이, 칼라유형 등의 정보와 통합처리되고, 그 결과 의복색채가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

는 영향의 비중과 양상은 의복유형 및 형태에 따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칼라유형은 3개 의복유형에 걸쳐 전반적으로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칼라는 얼굴과 가깝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의 포인트로서 중요하다고 한 일반적 의상디자인 이론은, 제 I보와 제 II보에서 모두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상형성실험의 자극물은 실제인물이 아닌 그림이었으므로, 실제 의복착용자의 모습을 자극물로 사용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의복유형 및 의상디자인요소의 종류와 수준을 확대하여 이들이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KBS 한국색채연구소, 색채 I, KBS 문화사업단, 20, (1994)
- 2) 오희선, 박화순, 의상디자인, 서울, 경춘사, 139-140, 86, (1994)
- 3) Mahannah, L., "Influence of Clothing Color on the Perception of Personality",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vada, in Horn, M.J., Gurel, L.M., *The Second Skin(3r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1)
- 4) Delong, M.R.,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7)
- 5) Asch, S.E., Forming Impres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1, 258-290, (1946)
- 6) Kaiser, S.B.,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5)
- 7) 조공호, 대인지각 연구의 전개, *행동과학연구*, 8, 197-223, (1986)
- 8) Tate, S.L., *Inside Fashion Design*,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295, (1977)
- 9) Marr, D., *Vision*, San Francisco, W.H. Freeman & Company, 298-325, (1982)